# 근시안적 행정에…걷기관광 명소 펭귄마을 '자동차 몸살'

## 남구, 상인들 민원에 주정차 단속 완화로 혼잡 부추겨
## 골목 거닐며 추억 쌓는 양림동 관광트렌드 고려 안해

광주시 남구 양림동 펭귄마을은 한 달 평균 찾는 관광객들만 2만명이 넘는다. 펭귄마을을 비롯해 인근 양림동 선교사 묘역, 예술인 작업실, 옛 도심 골목을 연상하는 동네 골목길을 걸으며 사진을 찍고 SNS 등에 올리는 젊은 관광객들이 대부분이다. 광주에서 유일한 도심 속 관광지라는 점이 인기의 비결 중 하나이다.

광주시 남구가 이같은 도심 '걷기 관광 명소'에 차량 통행을 오히려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쓰러질 듯 낡은 집이 늘어선 전형적 옛 도심을 한가롭게 거닐며 추억을 회상하는 관광지의 특성(수요)을 살리기 위한 정책 발굴 대신, 인근 지역민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려는데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광주시 남구는 최근 양림동 펭귄마을 일대 상인들의 집단 민원을 들어 펭귄마을 일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양림동 펭귄마을 일대의 호남 근대역사문화마을, 기독교 문화유적지 등에 설치된 고정식 CCTV 단속시간을 줄여 더 많은 차량들이 펭귄마을 내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양림교회 앞 ▲양림오거리 ▲양림 나들가게 마트 앞 3곳에 설치된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시간을 기존(오전 7시~밤 10시)보다 완화해 오전 8시~오후 7시까지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단속 변경 시간대를 보면 저녁 식사 시간부터 그 이후까지 단속하지 않겠다는 계산이어서, 정취 있는 양림동의 도심 풍경이 외지 관광객들에게 자칫 무질서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면 저녁 시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광객 불편도 예상된다.

남구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느끼는 관광객과 주변 상인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탄력운영제를 실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림동 내 공영주차장은 옛 양림동 주민센터(7면)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공영주차장(108면) 등 115면이 전부다.

하지만 양림동을 찾는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골목길을 걸어 다니며 사진을 찍고 인근 카페 등을 찾는 젊은층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양림동을 찾는 관광객 취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양림동 상가번영회는 그동안 주정차 단속으로 상인들이 영업에 지장이 많다며 CCTV 단속에 들어간 지난 4월부터 수시로 민원을 넣고 해결을 요구해왔다.

상인들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CCTV 운영으로 상권 매출이 급감했다는 집단 민원을 주민센터 등에 제기해 업무 차질이 빚어질 정도였다는 게 남구측 설명이다.

남구의 주차 단속 완화로 인해 펭귄마을 일대 차량 통행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15분에서 30분으로 늘리는 등 양림동 고유의 관광 트렌드를 살리고, 상인들과 조화롭게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점심시간(오전11시~오후 2시)에도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며 "교통환경 변화 등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단속 시간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한영 기자 young@

19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펭귄마을 인근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

**취약계층에 보낼 비상식량 포장**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직원들이 19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지사 대강당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단체급식 중단 장기화에 대비,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비상식량세트를 포장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타다' 손 들어준 법원

## "불법 콜택시 아닌 렌터카" 무죄…검찰, 항소 여부 검토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타다 측은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합법이라는 입장을 펼쳐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타다 서비스는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며 타다측 손을 들어줬다. "타다 이용자는 임차인이 아닌 승객"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선고 후 박재욱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윤석열 총장 오늘 광주 방문 앞두고
## 시민단체-보수단체 맞불 집회 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광주 방문을 앞두고 정부의 조속한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예고했다.

1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 50여명이 20일 낮 12시부터 광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청사를 향해 '시민의 함성'을 지르는 등 검찰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경찰에 집회신고를 낸 A씨는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연기되긴 했지만 검찰총장의 광주지검 방문은 '무소불위' 검찰의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단체인 '자유연대'도 20일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주지검 앞에서 3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서울과 부산에서 2~3대의 전세버스를 이용해 오는 인원 등 200여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기동대 2개 중대와 여경 등을 배치하고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윤 총장은 20일 오후 2시 광주검찰청에 도착, 광주지법·고법원장과 만난 뒤 오후 3시 10분 검찰 직원 간담회를 갖고 오후 5시 25분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분열·반목 대신 화합·연대 결의
## 5월 3단체 실천 여부 관심 집중

### 협의회 구성 운영 모색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5·18 40주년을 맞아 분열과 반목 대신 화합과 연대를 결의하고 나서 실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유공자 유족회,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구속 부상자회 등 5·18 3단체는 19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시, 5·18 기념재단, 오월 어머니집 등과 간담회에서 "단체들이 거듭나 광주시민 모두의 5·18 민주화운동으로 돌려놓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 모두가 불의와 독재에 저항한 광주시민의 의로운 항쟁이었고, 그 주체는 광주시민 모두였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그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 치열하게 투쟁했지만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우후죽순처럼 단체가 만들어지고 일부는 시민, 국민의 질시와 우려를 낳은 것 또한 사실"이라며 "시민에게 진정한 예우를 받는 순간까지 자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단체들은 또 "5·18 40주년을 앞두고 3단체가 집행부 세대교체를 실현했다"며 "분열과 반목을 더는 되풀이하지 않고 3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도덕성과 합법성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교통카드 충전하려 동전 수백개 내밀었다 거절 당한 60대 소란

**쌍나팔**

○…교통카드 충전비를 모두 동전으로 계산하려다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운 60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행.

○…1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62)씨는 지난 18일 밤 11시40분께 술에 취해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편의점을 찾아 '수일 전 동전 수백 개를 내고 교통카드 충전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며, 점원(여·22)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전을 들고 충전을 하러 갔는데 '지폐를 가져오라'며 거절한 점원에게 화가 나 며칠 뒤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 같다"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 사건번호 | 매각물건 물건번호 |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 비고 |
|---|---|---|---|---|---|
| [아파트] | | | | | |
| 2019타경 14484 | 1 | 북구 용봉동 1075 용봉동대주파크빌3차 301동 16층 1602호 84.5458㎡ | 아파트 | 250,000,000 250,000,000 | 2019타경72084[중복] |
| 2019타경 15098 | 1 | 광산구 목련로153번길56, 710동 12층 1204호 [운남동,광주운남7단지주공아파트] 59.29㎡[공유자이선미지분1/2] | 아파트 | 95,000,000 95,000,000 |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
| 2019타경 15203 | 1 | 광산구 풍영로63, 903동 10층 1001호 [월곡동,영천마을주공아파트] 84.86㎡ | 아파트 | 260,000,000 260,000,000 | 2019.8월부터관리비미납됨 |
| 2019타경 15616 | 1 | 북구 중흥동 689-1 3층 307호 68.53㎡ | 아파트 | 81,000,000 81,000,000 | |
| 2019타경 16374 | 1 | 서구 화정동 927-2 101동 6층 708호 131.52㎡ | 아파트 | 310,000,000 310,000,000 | |
| 2019타경 16732 | 1 | 서구 풍암신흥로18, 105동 9층 904호 [풍암동,광명메이루즈] 121.0522㎡ | 아파트 | 505,000,000 505,000,000 | 2019타경16947,2019타경75205중복 |
| 2019타경 73667 | 1 | 광산구 풍영로294-23, 109동 3층 301호[장덕동,광주수완세영리첼아파트] 114.493㎡ | 아파트 | 453,000,000 453,000,000 | |
| 2019타경 74172 | 1 | 광산구 사암로340번길30, 1010동 3층 303호 [월곡동,영천마을주공아파트] 59.77㎡ | 아파트 | 186,000,000 186,000,000 | |
| 2019타경 74646 | 1 | 광산구 월계로59, 208동 5층 506호 [월계동,호반아파트] 59.82㎡ | 아파트 | 161,000,000 161,000,000 | |
| [대지/임야/전답] | | | | | |
| 2019타경 14002 | 1 |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산39 16760㎡[공유자김종환지분16760분의16594전부.분묘다수소재] | 임야 | 34,847,400 34,847,400 |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
| | 2 | 영광군 염산면 상계리 산214-1 1441㎡ | 목장용지 | 25,204,000 | 일괄매각[수목포함] |
| | | 동소 산214-4 1721㎡ | 임야 | 25,204,000 | |
| 2019타경 15029 | 1 |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310-1 1456㎡ | 답 | 154,336,000 154,336,000 |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 사건번호 | 매각물건 물건번호 |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 비고 |
|---|---|---|---|---|---|
| 2019타경 15302 | 1 |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260 1240㎡[농지취득자격증명요] | 전 | 66,960,000 66,960,000 | 수목매각포함 |
| 2019타경 15487 | 1 | 담양군 용면 통천리 279-1 575㎡[제시외건물,수목및컨테이너매각제외] | 대 | 54,625,000 54,625,000 | 토지만매각 |
| 2019타경 72824 | 1 | 광산구 도덕동 322-4 207㎡[공유자오향균지분3/20전부.토지만매각[제시외건물매각제외]] | 대 | 23,598,000 23,598,000 |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
| 2019타경 73162 2019타경 73445 [중복] | 1 |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109 2031㎡[공유자고병주지분5/22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패러글라이딩활공장으로이용중] | 답 | 29,080,170 29,080,170 | 지분매각.공유자매수권행사1회로제한 |
| | 2 | 동소 272-11 2933㎡[목록1과지분동일.농지취득자격증명요.비닐하우스매각제외] | 답 | 28,663,370 28,663,370 | 물건번호1과비고동일 |
| | 3 | 동소 49-1 972㎡[공유자고병주지분2/7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 전 | 16,107,180 16,107,180 | 물건번호1과비고동일 |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 | | | |
| 2019타경 12228 2019타경 16015 2019타경 16206 [병합] | 1 | 나주시 빛가람동 348-13 아주드림타워2 4층 405호 108.42㎡ | 근린시설 | 170,000,000 170,000,000 | |
| | 2 | 동소 348-13 아주드림타워2 5층 504호 138.95㎡ | 근린시설 | 217,000,000 217,000,000 | |
| | 3 | 동소 348-13 아주드림타워2 5층 505호 108.42㎡ | 근린시설 | 170,000,000 170,000,000 | |
| | 4 | 동소 348-13 아주드림타워2 4층 404호 138.95㎡ | 근린시설 | 215,000,000 215,000,000 | |
| | 5 | 동소 348-13 아주드림타워2 6층 604호 138.95㎡ | 근린시설 | 215,000,000 215,000,000 | |
| | 6 | 동소 348-13 아주드림타워2 6층 605호 108.42㎡ | 근린시설 | 168,000,000 168,000,000 | |
| [기타] | | | | | |
| 2019타경 73391 | 1 | 영광군 불갑면 건우리 161-7 가동 310㎡ 제시외 창고 등 13.8㎡ | 버섯재배사,작업실 | 74,127,200 74,127,200 |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토지매각제외] |
| | | 동소161-7나동호310㎡[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면적310㎡이나실측170㎡,일부멸실추정] | 버섯재배사,작업실 | | |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1. 매각기일 : 2020. 3. 5. [목] 10:00
2. 매각결정기일 : 2020. 3. 12. [목] 16:00
3.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4.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5.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6.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0. 2. 2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민우